

주체적 여성으로

개척하는

총학생회

가자! 딸들아

해방여성

제 2 호

발행처 : 예국창원대학

총학생회

편집인 : 총학생회

기획부

본단조국 45년 5월 7일

해방여성 제 2 호

가자! 딸들아

가자! 딸들아
밥주걱 들고
자유를 단련하는
비인 광장으로

반평생 병어리로
소박대기 팔끈이로
땀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울부짖자.
이제는 일어서자.
이제는 달려가자.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주저하마.
학살의 잔치를 뒤엎고
황산벌에 다시 서보자.
우린 최루탄 대신 꽃상여다.
우린 군화 대신 맨발이다.
우린 총 대신 해방춤이다.
우린 몸동이 대신 맨주먹이다.



가자! 딸들아
흙먼지 쓰고
물이방 차며
그네 돌던 그 발길로
당그레 잡던 그 손길로
남 맞으며
어이 가자.

거짓 선전 이
청의 뱃전에 서서
민족 해방 여성 해방의
긴 생나팔을 불자.

꼭정이는 몰아내고
젖먹이는 일싸안고
무동의 날개로
퍼어린 하늘을 날자.

금강 초롱 그 얼굴에
돼지 평전 그 노래에
우리가 살아
죽더라도 살아
자주와 민주의 명진을 아.

가자! 딸들아 어이 가자.
달려온다 하늬바람. 잔물결이 살아 난다.
아기들 해웃음이 소리친다.
북악산 구름장이 보인다.
오뉴월 촌색시들이.

책 소개

신데렐라 콤플렉스

다른사람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고 싶어하는 여성의 본능은 오랫동안의 역사가 여성들을 세뇌 시킨 결과인 것이다. 여성해방론자들조차 제기하지 못했던 여성들의 잠재의식을 날 낚이 해부하여 보람되고 진취적인 인간의 태도에 올라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책은 우리 여성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손거울이다.

--콜레트 다울링--

썸바귀꽃으로 살아.

늘상 밟히도 문개지지 않고 질기게 살아남아 마침내 노오란 꽃을 아무 지게 피워내고 마는 썸바귀 꽃과도 같이 쓰라린 오늘을 건디어 우리들의 삶이 기쁨으로 굽이칠 수 있는 내일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여성 문제의 여러 부분들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적어 놓았다.

-들불 편집부-

사랑의 몸앗이

그 왜곡된 성.

하필이면 세계의 눈길이 집중된 모국의 조국에 관공이란 병패를 너의 아버지가 달아 주더냐? 이것이 바로 외화 획득이냐? 누가 너로하여 조국 고혼의 곡성이 이토록 당차게 하느냐. 아 밋줄은 하나. 그때도 마울수 없 딸들아. 못난 아버지만 듣기받고 이리 마도 뛰쳐나와 다소곳이 차기로 돌아 가자. 우리의 어머니들 처럼!

-동에 편집부 엮음-

희상 인사말

허리잡린 남녘의 봉림딸들이여!
진정우리는 하나여야합니다.

이 동은 여성을 물건을 팔아 먹기위한 미끼로 만들어 버리고, 경찰서에서까지 성고문을 자행하고 인신매매가 관습처럼, 독재정권은 외화획득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여성을 사창가에 팔아넘기는 현실입니다.

봉림의 딸들이여!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안일한 자보다 용기있는자가 언제나 억압받았왔지만, 그러나 이젠 학우여! 그 안일한 자가 가장 억압 받는다는 역사의 필연성을 확실히 알아야만 합니다.

학우여 이제 나약한 여성의 모습이 아니라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용기있고 굳센 주체의 모습으로 뚝뚝 뭉쳐 하나가 됩시다. 그리하여 여성을 억압하는 모든 불손들을 싹쓸어 버립시다.
"일선의 백보 전진보다 백인의 일보 전진을 위해"

여성해방 만세 !!!

조국통일 만세 !!!!!

-제5대 총여학생회장 김세련 (영문4) -

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다.

여기 하늘같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여기 새벽같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여기 태양같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창조합니다.

그들은 역사를 창조합니다.

그들은 미래를 창조합니다.

여성들이 잉태한 생명은, 역사는, 미래는,

우리모두의 희망입니다.

이 땅의 억눌린 딸들과 억눌려 살아온 어머니와

또 그 어머니의 어머니들이 살아온

고통과 투쟁의 창조의 세월동안

우리는 인간다운 사회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해 왔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거짓된 굴레에

여성들은 그 얼마나 고통받아 왔습니까

온몸으로 거부하며, 그 얼마나 싸워왔습니까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리의 창조자인 여성의 이름으로

우리는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다.

속보

지난 5월1일 "세계 노동자 대회"때 수출 후문에서 가두로 진출하기 위해 총여학생회 부회장 심영수(가정4), 인문학부 총무부장 허순경(사학3)학우가 화염병을 운반하다가, 연행 구속되어 지금 차디찬 경찰서에서 외로운 투쟁을 하고있습니다.

또, 같은 날 가두시의총 총학생회 기획부장 강보순(경제4)학우도 연행 구속되었다. 이들을 뜻을 이어받아 4천학우가 뚝뚝뭉쳐 앞으로 학원자주화 투쟁, 조국통일 투쟁을 힘차게 매진해나가자.

우리의 구속학우가 하루빨리 나와 대동의 장에 함께 어울릴수 있도록 싸워나가자 !!!11

홍보부

--3월 설문지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지난 3월 14일 부터 총여학생회 기획부에서 창원 대학 여학생들의 여성자신에 대한, 사회에 대한 인식들을 조명해 볼 수 있는설문조사를 2.3학년 500인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창원 대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학우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살펴보는 것은 곧 창원 대학의 발전상을 가늠해 보기에 충분하리라 보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 세대의 여성상에 대한 기준들이 많이 달라졌고 기존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요구되는 시기이기도하다. 그동안 '여성다움'의 세계에 갇혀 살아온 우리의 나약하고 의존적인 모습, 지나친 순종과 복종을 미덕으로 삼아온 우리의 자세들, 내면세계보다 외향적인 치장들로 평가받는 시기는 이제 우리 스스로 종말을 고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성자신 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비인간화 모습으로 가득 찼 것이기 때문이다.

본 설문 조사의 몇부분에서는 아직도 여성들의 스스로에 대한 인식들이 기존에 박혀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여성이 직업을 가질시 가사노동에 대한 역할 분담에 대해 응답자의 52%정도가 여성이 전적으로 해야된다고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가사노동이 계속 여성에게만 머무르는한 여성에 대한 저임금과 차별대우를가능케하는조건과 구실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에 대해서 정확한 역할 분담으로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종속을 공고화 시켜내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온갖 화려한 치장과 늘씬한 몸매를 가진 이들 여성들의 모습은 뼈빠지게 일하지 않고도 편안히 먹고 살 길이 보장되어 있는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수동적, 안일적인 태도에서 출발되며 이러한 행사가 지속되는한 남성들의 여성에 관한 판단들은 하나의 잘 다듬어진 상품으로 평가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조국 통일에 대한 여학우들의 생각들은 37% 불가능하다고 나타났는데 어쩌면 그러한 생각들이 통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것은 여태의 물려사적이면서 허구에 가득찬 반공 이데올로기 교육의 주입효과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외 여성학 강좌에 대한 비판들을 간추려 보면 여성학의 학문존재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때 지난 87년 강의들이 너무 피상적이면서 기존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탈피하지 못한 점들을 들었다. 그러나 요번 89년 이화여대에서 여성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이런것들을 보충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총여학생회에 바라고 싶은 점들은 많이 적어주어 여학생회 사업을 이끌어 나갈 집행부원들의 많은 반성과 아울러 앞으로 1600여 여학우와 함께 할 수 있는 장들을 펼쳐 나갈 것이다. 더불어 우리 여학우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비판적인 충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 여 협 제 2기 발대식을 가지면서

지난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여성해방의 횃불로서 참 평등의 세상을 일어나갈 경남지역 여학생 대표자 4명의 제2기 발대식을 경상대학교 민주광장에서 가졌다.

'가자 딸들아!! 경여협의 기치아래 억압의 사슬 끊고 참 평등의 세상으로!'의 구호아래 민족경남대학 애국창원대학 개척경상대학 여학우들의 사람됨의 세상을 열기위한 외침들은 쌀쌀한 초봄의 기운을 훈훈하게 더우는데 충분했다.

발대식 행사 프로그램을 1.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경여협 의장및 각 대학 총여학생회 회장단, 외부인사들의 힘찬 전진을 위한 다짐의; 말들로 시작되었으며 애국창대 땅사랑의 축하와 더불어 인간해방, 조국통일의 염원을 안은 오새끼 풍선들을 저 높은 창공을 향해 등실 등실 떠올렸다.

2부 개사곡 경영대회에서는 여성 인권 옹호의 말들을 대중가요곡에 담아 맞춰 불렀는데 우리 차원대에서는 매춘여성의 실태를 고발한 '한국땅은 밤이 좋아 (토요일은 밤이 좋아)'를 남학우 3명으로 구성된 팀이 불려 자추상을 받았으며 그 상상풍화의 대명사인 미스코리아를 풍자한 '미스코리아 그 여자' (신사동 그사람), 기지촌 여인의 처절한 애환을 담은 '기지 여인' (질서 여인)을 일컫는 '미/여성문제'에 대한 인식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이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감히 여자가 어디....' 라는 말들의 비논리적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더이상 이 시대에 통할 수 없고, 또한 자연적 생리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질 수 없음을 명백히 하면서 이러한 여성에게 가해지는 제반 차별적 요소들을 척결하는데 지성인으로서 앞장서 나아갈 것임을 선언하였다.

또한 주체적인 삶을 개척하는 참 인간상 정립을 위해 우리 안으로 부터 작은 여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결의음에 아였고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로 당당한 주체로 나설 수 있고 해방된 여성의 모습을 위해 더 한층 분발할 것을 다짐하였다.

4월 기획시리즈를 내면서

인류가 탄생했던 백만년전의 시대에는 여성과 남성은 똑같이 식량을 얻기 위해 돌아다녔으며 서로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점차 사냥에 적당한 사람과 채집에 적당한 사람이 있음을 깨달아 생리적 차이에 따라 역할 분담을 하게 되었다. 이후 역할 분담은 서로에게 맞는 노동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 분담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남성의 역할이 더 중요해짐으로써 남성의 지위가 강화되고 경제적인 재권비들을 소유하는 것은 남성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형태는 남성에게 유리하게 이용되어 일부다처제, 여성의 정조등을 강요하는 가부장제도로 바뀌어져 갔다. 이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문화는 여성을 남성의 보조적 존재로, 즉 남성에게 보호받고 부양되어지는 반쪽 인간의 위치로 떨어뜨리게 되었다. 그렇게 사회적 계도를 고정시켜 나아감으로하여 여성의 육체적 차이에서 비롯되었던 평등한 역할 분담은 사회적 차별로서 규정지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구조적 모순에서 오늘 불평등과 억압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매월 1회씩 대자보 기획 시리즈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 첫번째로 이번 4월달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 임금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우리 여성들은 사회에서 남성들과 똑같은 양의 일을 하지만 일당의 차이, 근속수당의 차이, (심지어 여자는 4년으로 제한시켜놓고 그 이상은 지불하지 않는 형태), 결혼, 정년 퇴직등 무수한 형태로 불평등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여성이 좀더 올바르게 인식하여 이를 깨치고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과정의 성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우리 여학우들의 처지를 근거로 조사하지 못하고 너무 한 계층 (노동자)의 사실만을 적게되어 아쉽고 죄송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달의 "여성 법적 불평등을 조사할때는 좀더 폭넓게, 깊이있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월 8일 마.창노련

여성노동자 전진대회

오후 6시 30분, 마산역 앞 카톨릭 여성회관에서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마.창노련 여성국 주최, 여성 노동자 전진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수출지역내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이 특강에서 강사는 국내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특히 여성 노동력을 착취하는 다국적기업과 이를 묵인, 노동착취를 조장하는 현 노태우 정권을 규탄하였다. 또한 수출지역내 한국 T.C전자의 위장폐업을 실향할 것과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모든 개책들을 규탄하였고, 정당한 생존권 옹호투쟁을 결의했다.

T.C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17년을 뼈까지 일했는데 위장폐업 연말이나!!!

1988년 5월 31일 한국T.C전자 내 민주노조가 결성된 후 이를 파괴하려는 회사측의 사악한 음모는 급기야 4월 4일 대표이사 이종구 명의로 불법인 '폐업공고'를 라디오나 T.V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한다.

한국 T.C는 지난 17년동안 적자한번 안내고 매년 막대한 이윤을 여성 노동자들로부터 착취해 갔다. 그러나 작년 민주노조가 설립된 후 회사측은 관리직 남자사원을 동원, 노조간부들을 폭행하여 10여명이 마산고려병원과 성모병원에 입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경정악화니, 경쟁력악화니 하는말로 직장폐쇄니 본국으로철수 하느니 하면서 T.C내 남자사원들과 잡부직 아줌마를 동원해 소요를 일으키는 수법(회사측의 노-노'노동자대 노동자'싸움 붙이기 전법)으로 계속적인 민주노조 파괴책동을 획책하였으나 조합원들은 한치의; 흔들림없이 설득적있게 잘 극복하여 왔다 또한 불법적인 폐업공고가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어도 T.C의 여성조합원들은 "서울T.C연구소에서의 상경투쟁", '부산 미 영사관 앞 침묵시위'등 계속적인 '위장폐업철폐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우리는 잠깐 탤디 그룹이 왜 한국 T.C전자자를 위장 폐업 시켰는지 살펴보자. 그것은 다국적 기업의 최대이윤 추구논리라는 반노동자적인 성격에서 유래함을 알 수 있다. 보다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데라면 지옥까지라도 가서 노동력을 착취하는것이 다국적 기업의 속셈이다.

문화부

지난 3.4월달에 음악감상실에서 3회에 걸친 비디오상영을 하였습니

다. 그 첫번째로 3월24일 여성과 남성이 성에대한 올바른 개념을 서로 알고 또한 여성에게만 강조하는 순결의 의미를 바로 알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남성학우들이 많이 참여하여 종래의 여성들에게만 요구되는 성의개념을 남성들도 같이 배우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두번째로는 4월6일 "국경없는 사랑"을 상영했는데 여기에서는 당시 독일과 프랑스의 전쟁당시 독일의 광부들이 프랑스의 광이 무너지자 그곳 광부들을 구하러가는 것으로 그야말로 국경을 초월한 인류애가 흐르는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이영화를 보신 분들은 모두다 마음속에 한번쯤 우리 한반도를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분단된지 45년이 지나도록 얼마만큼 우리는 북쪽의 우리 민족을 생각해 보았는지 또한 통일의 필요성은 얼마만큼 생각해 보았는지, 민족이 서로다름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건너 인류애를 발휘하는데 같은 민족으로써 사랑하기보다는 헐뜯기만 하는 우리 민족을 볼때 가슴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통일에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세번째로는 4월20일날 "모던타임즈"를 상영했습니다. 이 영화는 1936 찰리체플린에 의해 제작된 영화로서 개인의 독창성과 개성을 무시하고 조직이 요구하는 분업사회에서 하나의 부속품이 되기를 요구하는 현대와 현대인의; 갈등을 신랄한 비판의식과 고도로 승화된 풍자성으로 표출한 것입니다. 앞의 2회 상영때 보다 많은 호응 있었는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청바라며 나아가 같이 토론 하고 생각할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번에는 5월초에 "간디"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1972년 설립당시 한국 T.C의 자본 규모는 고작 150만 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10여년 동안 해마다 엄청난 흑자를 올려왔고 86년에는 당기 순이익이 66억 7천 3백만 달러, 88년에는 매출액이 1억 5백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무려 100배에 달하는 발전을 해왔고 이 모든 발전은 오직 T.C조합원들의 피땀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도 탤디그룹이 17년 동안 단물만 쏘 빼먹고 하루아침에 1400여명의 사원들을 길거리로 내쫓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악랄한 자본가의 작태가 아닐수 없다.

그러나 T.C여성 노동자들을 더욱더 분노케하는 것은 서울 T.C연구소의 점거농성을폭력적으로강제진압한 것과 부산 미영사관 앞 침묵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하여 양키놈들이 보는 가운데 여성 동자들을 파출소로 끌고 가는 행위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현 노태우 정권의 매국적 망동들이다.

결코 민중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노태우 정권은 현재 노동운동과 모든 애국적 운동들을 압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T.C의 문제는 현재 한국이 처한 민족적 처지를 잘 대변 한다고 할 수 있다. 현 시점처럼 노태우 정권이 폭압적으로 민중들을 탄압하고 있는 국면에서 반노태우투쟁을 가일차게 벌이면서 반미투쟁을 벌여야만 T.C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영화상영에 지는 기대

소자보를 붙이면서

5대 총학생회 사업계획을 구상할 때 전체적인 어학우들이 여성문제를 인식하고 인간 해방을 위해 한걸음 앞장하기 위하여 소자보로 확장실에 붙였습니다. 그 내용은 성의 상품화, 법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불평등에 대한 것과 차별임금, 제국주의의 성침탈로 나누어 어학우들과 연식을 같이하며 나아가 주체적인 여성상의 확립을 이루고자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자보의 형태는 많은 한계.이 있는것을 절실히 느끼며 대학에서의 남녀평등 관계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존재하는 여성의 상품화와 법적으로 여성이 불평등한 관계, 여대생으로서 인식해야 될 행동강령을 조사하여 소자보 하였습니다.

기회 불균의 여성 해방 정책과 실태

작년 6.10년 부정부패위원회 이후

대한 국부를 위해 많은 노력이 있어 왔다. 그중 하나가 "북한보통기 공"이다. 그것은 하나의 동포로서 북

한의 여성에 대한 정책과 현 실태의 객관적인 인식을 통해 45년간 이룩한

것이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단란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엄정 제재와

는 다른 경제로서, 교육제도, 인민, 인

정체적 차원이 법조항을 중심으로 전개

1. 남녀평등의 법적 보장률 위한 장

1946년 7월 30일 북한에서는 (북조

전 남녀 평등권에 대한 법률)이 선포

되었다. 이 법률은 9조로 되어 있으며

(북조전 남녀 평등권에 대한 법률)이

년 8월 개인 상공업이 전면 국영화 되

었다. 이렇게 사유제와 상속제가 없어

지자 대가족제도는 붕괴되고 가족 성원

들이 공동으로 가사를 운영하며 그 성

원들의 근로수입으로 공동적으로 소비

하여 노동능력이 없는 가족 성원들에

대하여 물질적 방조를 주는 것 등을

경제적 기층의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가

속계급 즉 사회민주적 가족계급이 발흥

한이게 되었다.

2. 새로운 가족관계와 여성해방 정책

북한에서의 결혼연령은 법적 하한선이

여자 만 17세, 남자 만 18세이다. 그리

고 북한여성의 배우자 선택의 자유는

선순위로는 (1) 근관 (2) 계대군인 (3)

기층을 가진 직장인의 순으로 나타

나며, "당성"을 우선으로 선택을 할

배우자 선택의 방법은 연애자 중매

의 비율(22%), 중매결혼(21%),

연애결혼(15%), 당에서 양선(15%)

(, 그외(26%)로 나타나며 결혼이

결정되면 신부측에서 태임을 하며

사직에 대한 예물은 준비하지 않는

것이 유행이고 사주단자를 보내는

일도 없다. 결혼후가는 3일이며 시

구역, 군, 사회안전부 주민회에 신고

하여야만 비로소 법적 부부동 주민

된다. 그리고 북한여성은 결혼해도,

출산해도 퇴직할 필요가 없으며 산

후 8주임간의 출산휴가가 끝나면 아

이는 타아소에서 받아주며 출장이

제한된임무에는 주간 타아소가

맡아준다.

1946년 6월에 공포된 (노동법)에

의하면 동공을 제외한 모든 기업소

및 사무직장에서 일하는 노동여성은

산전 35일, 산후 42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고 타아소에서 양육된 아

린이는 만4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부

지원에 보내게 된다.

1948년 7월 10일 북조선 인민회

의 제5차 회의에서 개정된 헌법 제

23조에서는, "부모는 결혼생활 이외

의 출생자와 결혼생활에서의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동일한 의무를 가지며

공회자도 결혼 생활에서 출생한 아

이를과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한

다.

-임산부 및 산모에 관한 규정-

'여성 근로자들을 정당한 보호휴가

외에 근속연한에 관계없이 산전35일

산후42일간의 휴가를 받는다.' (노동

법 제66조, 1946년 노동법 14

조)

'국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한지

한 휴가 지급제에 의한 의무상 해택

을 준다.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

및 그들의 부양가족은 치료, 휴양,

예방, 해산을 모든 의료물자를 무상

으로 받는다.' (노동법 제79조) 또한

서서 일하는 여성에게는 1시간마다 5

-10분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한다'고 한

다.

-노동시간-

1978년 4월 18일 시행된 '사회

주의 노동법'은 하루 노동 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3명 이상의 여

린이를 가진 여성 노동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그리고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여성들은 가정

에 남아서 가정부부들에게 일정한

임금제도를 주도록 만들어져 있는 가

내 작업반을 통하여 일을 한다. 그

외에, 해산을 모든 의료물자를 무상

으로 받는다.' (노동법 제79조) 또한

서서 일하는 여성에게는 1시간마다 5

-10분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한다'고 한

다.

-노동시간-

1978년 4월 18일 시행된 '사회

주의 노동법'은 하루 노동 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3명 이상의 여

린이를 가진 여성 노동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그리고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여성들은 가정

에 남아서 가정부부들에게 일정한

임금제도를 주도록 만들어져 있는 가

내 작업반을 통하여 일을 한다. 그

외에, 해산을 모든 의료물자를 무상

으로 받는다.' (노동법 제79조) 또한

서서 일하는 여성에게는 1시간마다 5

-10분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한다'고 한

다.

조)로 규정되어있으며 또한 -어 보육교양법-에 의하면 '국가는 임신한 여성들에게 그에 맞는 할한 일을 시키며 어린이들을 가진 어머니에게는 노동시간에 젖먹이는 시간을 보장한다'로 되어 있어 임부는 해산시는 모든 의료봉사를 무상으로 받으며 노동하는 여자로서 1년 이내의 유를 가진 경우에는 1일 2회 30분씩 젖먹일수 있으며 유모의 젖먹이는 시간의 임금은 유모의 평균임금에 의하여 지급한다. 현재에는 1년이하의 유아를 가졌을시에는 오전 2회 오후2회씩 각각 30분씩 젖을 먹일수 있고 1년 이상의 유아가 젖을 먹을 경우에는 오전, 오후 각각1회씩 젖먹일수 있다. 이상으로 북한에서의 남녀평등을 향한

책 : 살펴 보았듯이 확실히 이를 위한 정책적 배려와 노력들은 두드러진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뿌리깊이 박혀있는 유교적인 사상과 습성으로 인해 남녀평등을 위한 세밀한 제도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실생활에서는 차질이 많이 있음이 사실이다. 그것은 북한의 여성 정책이 해방전후 복구와 건설의 중대한 과제에직면했을때 엄청난 일손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여성의 잠재적인 노동력을 요구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은 봉건적 유제의 틀 속에서 끌어내기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주도 되었으므로 밑에서 위로의 자발적인 요구가 아니라 철저한 하향식으로 이끌어 졌던 까닭이다. 그러나 한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나라의 '법'을 보는 말이 있다.

남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입장과 태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기표이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볼때 이제까지 교육 받아왔던 '악의 뿌리' 공산당들의 정책을 비판할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장애물을 걷어내고 모든것을 바로 볼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게 급선무일 것이다. 끝으로 혁명의 성공은 여성들이 어느정도 참여 하는가에 달려 있음이 모든 해방운동에서 증명되었듯이 우리의 통일운동에도 그 성공여부는 바로 인구의 절반인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끝



5,6월 행사 안내

- 5월 대동제- 성교육 슬라이드, 성의 전국 코리아 상영
 ;미용강좌
 ;여성문제 논설전
 ;매춘 심포지움
 기획시리즈 - ;5월달 '법적 불평등'
 ;6월달 '제국주의 성침탈사'
 영화상영 - 5.11 '칸디' 상영 이후 매달 2째주, 4째주 상영
 장소: 음악감상실
 6월 민주여성학교 개설
 학우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독자란

이 세계 절반은 나

ROSS McIlhenny

